

인구소멸 대응 '강·해·영 프로젝트'...전국 상생모델 만든다

(강진·해남·영암)

3개 군 서울서 선포식...지역 연계 '관광 벨트화' 추진 캐릭터 개발·브랜딩 홍보 등 관광객 유치사업 협력

강진군이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영암군과 관광 콘텐츠를 한데 묶어 새로운 지자체 간 상생 모델인 '강해영 프로젝트'를 전국에 선보였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강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 업무 협약·동행 선포식을 가졌다.

3개 군(강진·해남·영암)의 동행은 기존 구호에만 그쳤던 지자체 간의 협력을 뛰어 넘어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생활 인구를 유입해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3개 군 소재 문화관광재단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3개 군은 관광 분야 광역 벨트화를 통해 참여 지역의 신 성장 동력 발굴·확보를 위한 단일 관광 권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호 보완과 지역 연계를 통해 권역 체류 시간 증대를 모색한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해영 캐릭터 개발·브랜딩 홍보 ▲지역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강해영 1박2일 시티투어 ▲강해영 전세열차 ▲특별 이벤트 '강해영을 찾습니다' ▲지



지난 12일 서울시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의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 업무협약 및 동행 선포식이 열렸다.

(강진군 제공)

역주민·지역관광 사업제 역량 강화 ▲ 강해영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관·학 포럼 및 세미나 등 홍보 마케팅 사업과 직접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

강해영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올해는 거버넌스 체

계 구축, 브랜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고, 내년에는 강해영 프로젝트 관광 콘텐츠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며 2026년에는 강해영 방문의 해를 추진함으로써 상생 협력의 선례를 남길 계획이다.

3개 군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시작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남도 여행 권역으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협력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지역 연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느끼는 지방 소멸은 절박하다"며 "3개 군이 힘을 합쳐 관광을 통한 생활 인구 유입 등 인구소멸 대응의 모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군, 붕괴위험지구 신축 아파트 道 감사결과 '부적정'

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부실 郡 '시정'·관계자 4명 '훈계'...송방망이 징계 처분 지적도

무안군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일부 부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했으나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에 부적절한 행정업무를 추진한 관계자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려 징계 수위가 낮은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무안읍 성남리 일원 붕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부지에 신축된 아파트 행정

처리와 관련 지난 2018년 3월~2021년 1월까지 건축 과정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 처리에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군에는 '시정·주의', 안전총괄과 관계자 4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았던 지형도면 등 파일을 올리도록 '시정' 요구를 받았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동시에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앞서 군은 지난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2019년 5월 이 지구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공동이 발견돼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군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시공사의 지질조사

에만 의존해 사용 허가를 내줘 지난 2022년 완공된 아파트에 287가구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 신축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착·준공 확인 등 시공업체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의도적인 시공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감사 결과 해당 관계자에게 훈계 조치는 훈방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부적절한 행정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김성호 기자



'나주 강소특구사업' 성과 공유·사업 설명회

지역 혁신기관 연합...기업 지원 사업 총망라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 상생생태계 조성처는 "최근 나주 혁신산단에 위치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주 강소특구사업 성과공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 지역 혁신기관·기업들의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신규·고밀도 집약 공간을 연구개발(R&D) 특구로 육성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한국전력공사가 기술혁신기관인 최초의 공기업형 연구개발특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태양광, ESS(에너지저장) 등 에너지 기업 R&D 역량 강화·강소형 창업육성 사업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신규 창업 48건, 공공기술 이전 106건, 연구소 설립 20건과 48억원 규모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설명회에는 나사인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상원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 백종현 산학협력실장(강소특구사업단장), 김강식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소특구 관계자와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기업별 최대 1억원의 시제품 제작, 경영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스케일업(Scale up)' 사업을 포함해 25억원 규모의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나사인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기반으로 혁신기관·기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 평화광장 '헤리티지 호텔' 그랜드 오픈

총 42개 객실...관광 인프라 구축 등 2천만 관광객 유치 '청신호'

목포지역 중견 건설업체 근화건설(주)이 맛과 멋의 도시 목포의 관광인프라 사업을 위해 목포 평화광장에 명품 비즈니스 헤리티지호텔(사진)을 완공, 오는 18일 오전 11시 그랜드 오픈식을 갖는다.

근화건설은 13일 "목포 관광1번지 평화광장 인근 원형서로 22에 지상 8층 총 42실 규모의 비즈니스 숙박시설 헤리티지호텔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헤리티지호텔은 근화건설(주)故(고) 김호남 회장의 사업을 이어받은 2세 경영자인 김유림 총괄사장과 장보성 근화건설 대표의 첫 사업으로서, 향토기업의 역사와 선대의 문화유산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헤리티지라고 명명했다.

목포시가 2024년까지 2천만 관광시대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호텔급 숙박시설이 부족해 관광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으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위해 경영형이 아닌 체류형



(숙식형)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근화건설(주)이 목포관광의 중

심 평화광장 인근에 헤리티지호텔을 완공한 것 또한, 2천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근화건설(주) 관계자는 "이번 헤리티지호텔 완공으로 관광 비즈니스 숙박 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는 다양한 패키지 특별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와 전남 레저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화건설(주)은 지난 2018년 강진에 27층 규모의 다산베아채권트리클립과 2019년 다산베아리조트를 완공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군, 사랑의 PC 무상 보급 신청

해남군은 "최근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를 보급해 주민들의 효용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랑의 PC 보급은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된 컴퓨터를 교체한 후 재정보화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천700대의 컴퓨터를 보급했다.

컴퓨터가 없는 가정의 정보 이용과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보급수량은 본체 80대, 모니터 80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남군청 총무과 정보통신팀(해남읍 군청길 4)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박필용 기자

'봄꽃 향연'...1004점 신안 수선화축제

지도읍 선소리 일원...노란 옷 착용시 입장료 50% 할인

신안군이 오는 22일부터 4월7일까지 지도읍 선소리 일원에서 '2024 섬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

'수선화 여인'이라고 불리는 현복순(91세) 할머니가 30년 전 선도에 정착한 뒤 집 주변에 하나둘씩 심은 수선화가 어느새 선도 일대를 노랗게 물들이며 수선화 정원으로 꾸며지기 시작했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현복순 할머니의 노력과 사랑으로 외딴섬 선도를 아름다운 선도로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선도에는 134ha 면적에 아를, 핑퍼넬을 포함한 17종의 수선화 구근 208만 구가 심어져 200만 송이의 수선화가 화려하게 피어 장관을 이룬다. 봄꽃 향기 속에 노란색으로 물들

인 특별한 신안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일반·단체는 6천원 ▲노란색 옷 착용 시 50% 할인을 받아 3천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조예에서 규정하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무료로 수선화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일반·단체에게 1004점 신안 상품권 5천원, 노란색 옷 착용 시 3천원을 돌려

/신안=양훈 기자



함평군 '2024 대한민국 난 명품대제전'

16-17일 이틀간 함평문화체육센터서 개최

전국 최고 난 축제인 '2024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한국출란의 최대 자생지 함평군에서 막이 오른다.

함평군은 13일 "'2024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오는 16-17일 이틀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주최하고 함평난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국출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매년 3월 함평에서 개최된다.

'한국출란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난 대제전은 화예품과 엽예품 등 한국출란 450여점이 전시

될 예정이다.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1천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150여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품이 가능하며, 오는 15일 오전 11시~오후 4시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익 군수는 "이번 전시회가 한국출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 문화의 대중화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